

“겨우내 잠들었던 감성을 깨워라”...문화전시 TOP4

마리 로랑생·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거장들 전시 즐비

비로소 겨울이 끝났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기가 가득했던 아침 공기에서 어느덧 싱그러움 봄 향기가 물어나기 시작한다. 회색빛 거리 곳곳에선 봄철의 푸름도 피어난다. 추운 날씨에 한껏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이 가까이 온 것이다.

문화계에선 봄날을 고대했던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다양한 전시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뜻한 봄날, 메말랐던 감성을 촉촉이 채워줄 전시회 TOP4를 소개한다.

◆**색채의 황홀 ‘마리 로랑생전’**= 프랑스의 위대한 여성 화가이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작가 마리 로랑생을 한국에서 만난다.

한가람미술관은 오는 11일까지 색채의 황홀을 주제로 ‘마리 로랑생전’을 선보인다.

마리 로랑생은 1910~1930년대 프랑스 파리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의 예술가’로 불린다. 파블로 피카소, 코코 샤넬, 장 콕도, 알베르 카뮈 등 수많은 예술가와 교류한 그녀는 ‘몽마르트의 뮤즈’, ‘핑크 레이디’로 불리며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160점에 달하는 작가의 유화, 수채화, 삽화, 사진 등이 소개된다.

◆**교과서에 나온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20세기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꼽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 국내 최초로 소개된다. 스위스 출신의 화가, 조각가, 사상가로 유명한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독창적인 형태와 비장한 사유 세계를 담은 작품들로 예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는 국내 전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작품 평가액을 기록한 것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총 평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현대 조각상 중 1000억원이 넘는 유일한 조각상인 ‘생각의 가치’도 포함돼 있다.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전시되며,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그대, 나의 뮤즈-반 고흐 TO 마티스’**= 반 고흐가 느꼈던 남프랑스의 태양과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르누아르가 관찰했던 파리인들의 휴식을 앞에서 지켜보다가 시공간이 멈춰진 찬백한 파리 시내를 카유보트와 함께 산책할 수 있다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중인 ‘그대, 나의 뮤즈-반 고흐 TO 마티스’는 기존 전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이 전시는 반 고흐



흐, 르누아르, 카유보트, 마티스 등 당대 최고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을 다룬다. 영상과 음향에 함께 제곱데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특징이다.

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기기에 좋다.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에르미타시박물관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시박물관의 소장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된다. 에르미타시박물관은 프랑스를 제외한 박물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프랑스 미술 컬렉션을 보유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예카테리나 2세를 비롯한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들과 러시아 귀족, 기업가들이 열정적으로 수집한 프랑스 미술품들은 이 박물관을 오늘날 유럽 미술 컬렉션의 정수로 자리 잡게 했다. 전시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광국 기자 kimgg@

임의성의 통증클리닉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걸리는 수두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감염되어 치료 후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증상을 발현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 중년 또는 노인에게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질병이 있거나 과로, 다이어트, 정신적으로 삼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은 신체의 한쪽에만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절을 따라 띠 모양의 수포성 발진과 동일 부위 신경통입니다. 간혹 발열이나 몸살과 같이 감기증상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을 따라 여러 개의 물집이 생기고 물집은 고름이 차며 딱딱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1~2주가 지나면 피부 병변은 좋아지지만 면역력이 약할수록 피부 발진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발진 후 첫 3일 정도는 오히려 피부병변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 보체결합항체의 측정이나 EIA법, ELISA법 등이 있으나 대개 임상에서는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과 문진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대상포진은 빠른 치료시작 시기가 난치성 통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 시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거나 피부 발진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또는 발병 초기부터 피부 감각의 저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포성 발진이 생기기 전에 해당부위 통증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 예후가 더 불량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포진이 아닌 다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특징적인 피부발진이 치료된 이후에도 해당 피부분절에 같이 베이거나 바늘로 콧속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질통(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및 통각과민(통증을 유발할 만한 자극이나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발레가 기어가는 느낌, 복벽의 복근마비로 인해 배 한쪽이 블록해지는 증상 등 다양한 증상과 통증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바이러스가 침범한 해당 신경부위의 신경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경치료를 병행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신경통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강도나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하는 약제(대표적으로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와 해당부위 신경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본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대상포진과 관련된 환자는 이미 급성기를 지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된 이후에 통증치료를 위하여 내원합니다. 대개 인근 피부과나 내과에서 항바이러스제 등의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수포성 발진은 호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서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된 이후에 전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상포진은 피부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에 침범하는 신경질환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의성 미취통증의학과 원장 02-2646-7582

눈여겨봐요! 인사노무 news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제도는 기업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신(新)중년 인건비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첫해 인 올해는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세가 넘어 퇴직

금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가 선정되었으며 적합직무에는 경영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정비원 등 중년 구직자에 익숙한 기존 직무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안내

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 423만명, 2017년 440만명에 다다릅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

문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포함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하거나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02-869-3131

「一生一業」

오직 장인정신으로
변압기만 만듭니다

www.sjtr.co.kr

SUNGJIN TRANSFORMER

진공주형 몰드변압기

CAST-RESIN TRANSFORMER

빠른납기!!
고효율!!
저소음!!

주요생산품목

- 신공주형 몰드변압기
-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
- 고효율(표준소비효율) 유입변압기
- 전력용 유입변압기
- 배선용 유입변압기
- 지상설치형(PAD) 변압기
- 건식 변압기
- 특수 변압기 (징류기, 로용)

성진종합전기(주)
Sungjin General Electric Co., Ltd.

본사·공장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424번길 17-26
F)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영리 77-11번지
TEL : (031)355-9977 (代)
FAX : (031)356-1452
A/S : 010-2232-9977